

**누드 TV·VCR, 일본
시장 선풍적 인기**

⋮
대우전자

대우전자 누드 TV, VCR이 일본시장에서 큰 호응을 받고 있다.

대우전자는 누드 TV, VCR이 일본시장 출시 1개월만에 약 5만대씩이 팔리는 등 하루 평균 2천대 가까운 판매량을 보이고 있어 일본 젊은층 사이에서 인기를 끌면서 히트상품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누드 VCR의 경우 가격면에서도 일본 일류 메이커와 동등한 1만7천엔의 가격으로 기존 제품보다도 30% 이상의 고가이면서도 소비자들에게 인기가 많아 판매량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일본시장에서의 반응이 폭발적인 것은 치밀한 디자인 전략을 통해 젊은 층이 선호하는 디자인과 컬러를 선정하는 타깃 마케팅이 적중했기 때문이다.

대우전자 누드 TV, VCR은 최근 전자업계에 불고 있는 투명 디자인 추세에 따라 제품의 내부가 보이도록 반투명의 디자인을 채택한 제품으로 일본의 최대 가전 유통 업체인 '고지마(KOJIMA)'사와 공동으로 1년 여에 걸쳐 철저한 일본 가전시장

조사를 통해 10~20대를 대상으로 디자인한 최첨단 디자인 제품이다.

**스웨덴 “올해의 최고
브랜드”로 선정**

⋮
대우전자

대우전자가 스웨덴에서 “올해의 최고 브랜드”로 선정되어 북유럽에서 마케팅 활동과 품질 경쟁력을 인정받게 됐다.

대우전자 스웨덴 판매법인 (DESCAN ; DAEWOO ELECTRONICS SCANDINAVIAAB)은 스웨덴 전자협회에서 전자제품 메이커를 대상으로 가장 우수한 제품과 브랜드의 전자회사에 수여하는 “Company of the year, 1999”에 선정되었다.

올해로 11회째인 이 상은 전자협회에서 **■마케팅** 활동과 캠페인의 참신성 **■브랜드** 인지도 **■제품** 품질 세 가지 기준으로 매년 한 업체를 선정하는데 역대 수상 업체로는 필립스, 샤프, 노키아 등이 있다.

지난해 5월에 설립된 스웨덴 법인은 초기 단계부터 현지 마케팅 환경과 소비자의 needs를 사전에 파악하고 이에 부응하는 마케팅 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품질경쟁력을 갖춘 TV, 카오디

오, 냉장고, VCR, 청소기, 오디오 등의 품목으로 틈새시장을 적극 공략, 설립 1년 6개월만에 북유럽의 전진기지로 성장했다.

**인쇄회로기판용 광학검
사기 양산개시**

⋮
삼성전기

삼성전기가 국내최초로 개발한 인쇄회로기판 검사설비인 광학검사기(AOI)를 본격적으로 양산, 시판에 들어갔다.

삼성전기는 그동안 국내에서 생산하지 못하던 인쇄회로기판 검사설비를 97년 국내최초로 개발해 3년간 필드테스트를 통해 수차례에 걸쳐 기능과 성능을 개선시켜오다 금번 시판하기에 이르렀다.

이 설비는 최첨단 기판인 BGA와 다층회로기판(MLB)의 불량(배선도금상태, 뭍김, 변색 등)을 검사하고 수정하는 설비로써 세트당 가격은 7억원에서 10억 원대를 호가하고 현재 100% 외산에 의존하고 있으며, 연간 유지비도 많이 소요되는 설비다.

또한 기판 제조업체에서는 필수적으로 구비해야 하는 설비로 생산스피드 및 품질을 좌우하는 설비다. 세계적으로도 기판 생산업체가 이 설비를 판매하는 곳이

없이 기관생산업체로서는 검사 설비를 판매하는 것은 삼성전기가 세계최초다.

삼성전기가 개발한 광학검사기는 5미크론의 해상도로 초당 6천만개 화소의 100여가지 항목을 동시에 검사할 수 있으며 과검출(불량을 과다하게 검출함)이 적은 것이 큰 특징이다.

납땀용 플럭스 개발

...

삼성전기

그동안 전자업계는 필수 생산 공정인 납땀공정에서 휘발성유기화합물인 플럭스 사용으로 화재위험성에 시달려 왔으나 전자 부품메이커인 삼성전기가 폭발성과 유독성 없는 납땀용 플럭스를 개발해 이를 해결했다.

금번 삼성전기가 개발한 제품(NFV-Flux)은 비휘발성물질로 폭발로 인한 화재 위험이 없고, 유독성물질이 아니라 작업환경이 좋아지며 납땀의 속도 및 품질을 높여주는 신물질이다.

기존의 플럭스는 인화성과 폭발성이 강한 물질로 납땀공정에서 화재사고 위험성이 매우 높아 소방법에서 규정된 위험물에 해당되어 별도의 보관창고 및 생산 현장 사용자 각종 규제를 받고있다.

또한 유독물질로서 2000년부터는 VOC(휘발성유기화합물) 규제를 받아 이를 위한 대기방지 시설을 해야한다.

이러한 위험·유해성과 번거로움 때문에 대체물질 개발이 절실히 요구되어 왔다.

삼성전기가 개발한 플럭스(NFV-Flux)의 특징은 비휘발성물질이라 소방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물질이며, VOC규제 대상이 아니므로 각종 규제를 받지 않는 제품이다.

또한 전자제품의 납땀속도 및 품질을 높여주므로 기존 전자업체가 생각해오던 대체물질 이상의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

IMT2000 터보 복호 칩 개발

...

삼성전자

삼성전자는 98년부터 10억여원의 개발비를 투입, 최근 IMT2000 단말기와 통신시스템에 사용하는 터보 복호기칩을 개발했다.

삼성전자가 관련 알고리즘부터 구조·설계까지 자체기술을 투입해 개발한 터보 복호기칩은 영상과 음성 데이터를 처리하는 IMT2000 단말기와 시스템에서 데이터 송수신 오류를 정정하는 이동통신 핵심칩으로, 기존 음성

단말기 전용의 비터비 복호기와 달리 데이터 전송률이 높은 것이 특징이다.

이 칩은 또 최고 데이터 송수신 속도가 2Mbps로, 영상·음성을 실시간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최적화된 설계로 저전력 작동이 가능하다고 삼성전자는 밝혔다.

삼성전자는 이 칩을 금년부터 시험 서비스에 들어가는 IMT2000용 단말기와 기지국 시스템에 적용할 계획이다.

'TV폰' 세계 최초 개발

...

삼성전자

이동중에도 전화통화는 물론 TV시청까지 할 수 있는 TV복합형 이동전화단말기가 국내 기술진에 의해 세계 최초로 개발됐다.

삼성전자는 지난 12월 1일 조선포털에서「TV폰 제품발표회」를 갖고 1.8인치 고선명 컬러 액정표시장치(TFT LCD)를 탑재한 폴더형 휴대폰에 초소형 TV수신기를 내장한 제품(모델명 SCH-M220)을 공개하고, 금년 초부터 본격 시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제품은 서로 다른 주파수의 TV신호와 휴대폰 신호를 동시

에 수신할 수 있는 고성능 안테나를 채택했으며, 기존의 휴대폰 회로를 최소화해 초소형 TV수신기를 내장함으로써 기존 폴더형 휴대폰의 크기와 무게(160g)를 유지했다.

또 대용량 배터리를 이용할 경우 최대 170분의 연속통화, 180시간의 연속대기시간을 실현토록 했으며, 최대 200분까지 TV를 시청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삼성의 TV폰은 또한 TV에서 방출되는 전자파와 무선신호간 간섭을 최대한 억제했으며 특수 스위칭기술을 적용, 1개의 안테나로 2개의 수신기능을 동시에 구현하는데 성공했다.

MP3플레이어 핵심칩
C-PAD 국산화 성공

삼성전자

삼성전자는 차세대 휴대형 디지털음향기기인 MP3플레이어용 핵심칩 C-PAD(CalmRISC for Portable Audio Devices)를 국산화하는데 성공했다.

이번에 국산화한 칩은 MP3플레이어에서 두뇌역할을 하는 디지털신호처리기(DSP)와 마이크로컨트롤러(MCU)를 원칩(One Chip)화시킨 비메모리 반도체로 그동안 전량 수입에 의존해 왔다.

삼성전자는 이 칩이 휴대형 전자제품의 소형화·경량화 추세에 적합할 뿐 아니라 저전력소비를 구현해 음악재생시 MP3제품의 작동시간을 27% 향상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칩은 128kB의 플래시 메모리를 내장, 소프트웨어를 수시로 변경할 수 있어 MP3용 음악뿐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사의 MS오디오, 리얼네트워크사의 G2 등 다양한 종류의 음악파일을 재생산할 수 있다.

삼성전자는『이번 제품은 자체 기술로 개발한 MCU 코어인 칼리스크를 원칩화한 것으로 금년 4월부터 양산에 들어갈 예정』이라면서『오는 2002년까지 3000만 달러의 수입대체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천연냉매 냉장고
첫 개발

삼성전자

삼성전자가 자연에서 채취한 천연냉매를 채용한 친환경 냉장고를 처음으로 개발했다.

삼성전자는 지난 4년간 약 100억원의 연구비를 투입, 오존 파괴지수는 물론 지구온난화지수를 제로(0)에 가깝게 낮춘 천연냉매「이소부탄(R-600a)」과 무공해 발포제「사이클로 펜탄」을

채용해 환경파괴요인을 원천적으로 제거한 간접냉각방식의 환경냉장고를 개발했다.

삼성전자는 이에 따라 금년 1월말부터 환경규제가 심한 유럽 시장에 수출하는 것을 시작으로 국내외 시장에 본격 공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가 이번 친환경 냉장고에 채용한 무공해 냉매 이소부탄은 원유 정제과정에서 발생하는 탄화수소가스의 일부를 고순도로 정제한 것으로 오존층에 영향을 주는 염소(Cl)와 불소(F)가 전혀 포함되지 않아 오존층파괴지수가 제로이며 지구온난화지수도 3에 불과한 천연냉매다.

이는 현재 사용중인 프레온가스(CFC)대체냉매인「R-134a」에 대해서도 지구온난화지수가 1300에 달하므로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는 환경단체들의 요구에 따른 대안으로 개발된 것이다. 특히 독일 등 일부 국가에서 이 냉매를 활용해 직접냉각방식의 소형냉장고를 개발한 적은 있으나 이처럼 간접냉각방식의 중대형 냉장고에 적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에 개발된 친환경 냉장고는 또 자체 개발한 고효율 압축기를 채용, 소비전력도 동급 외산제품에 비해 20% 정도 낮은 월 30KWh에 불과해 유럽의 에너지효율등급 가운데 가장 높은 A등급을 획득, 수출을 크게 늘릴 수 있을 것으로 삼성전자는

기대하고 있다.

한편 삼성전자는 이 제품과 관련된 냉각시스템 등 3건에 대해 독일·영국·프랑스 등 해외 5개국에 특허를 출원해 놓고 있으며 국내에도 12건의 특허를 출원중이다.

전화번호 1500개 윈터치로 다이얼링, 새 전화기 개발

삼성전자

삼성전자가 전화번호부 데이터베이스를 내장해 최대 1500개 전화번호를 윈터치로 자동 다이얼링할 수 있는 키폰(모델명 DS3020S)을 출시한다.

이 제품은 16MB메모리칩을 내장, 전화기에 전자수첩기능을 채택한 효과를 볼 수 있다.

최근에 전화한 번호 30개를 기억해 재다이얼링할 수 있고 간단한 전자계산기능도 갖추고 있다.

또한 전화기를 교체할 때 전화번호 DB를 그대로 옮겨서 사용할 수 있으며 삼성전자의 모든 디지털 교환기에 연동해 사용할 수 있다.

F램사업 나선다

삼성전자

삼성전자가 이르면 금년부터 차세대 제품으로 떠오르는 강유전체 메모리반도체(F램)와 리튬 폴리머전지 사업에 본격 뛰어들는다.

삼성전자는 올해 4M비트 F램을 개발했으나 상용화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삼성중합기술원과 공동으로 차세대 제품으로 32비트 F램을 본격 개발해 내년중 상용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삼성전자는 금년중 리튬 폴리머전지의 양산체제를 구축한다는 방침아래 이를 위한 사전 작업으로 시험생산라인을 구축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는 국내업체로는 처음 폴리머전지 시장에 뛰어들어 이 시장을 주도하는 일본업체와의 격차를 이룬 시일 안에 좁힌다는 전략이다.

삼성전자의 이러한 행보는 2000년대 초반 거대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관측되는 두 제품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F램은 D램과 S램, 플래시메모리의 장점을 모아 휴대형 제품의 차세대 메모리반도체로 각광받고 있으며, 폴리머전지는 이동

단말기 시장의 활성화로 고속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19인치 브라운관 후면 유리 국산화

삼성코닝

삼성코닝이 기존 브라운관에 비해 길이가 짧고 가벼우면서 전력을 적게 소모하는 19인치 브라운관 후면유리의 국산화에 성공했다.

삼성코닝은 지난해 2월부터 10여개월동안 10억원을 투입, TV와 모니터에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초단축·초절전형 19인치 브라운관 후면유리를 세계 처음으로 개발했다.

초단축·초절전형 브라운관은 현재 일본업체들만이 특허권을 보유, 세계시장을 독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삼성코닝은 이번에 일본산보다 기능이 뛰어난 19인치 제품을 개발함으로써 세계시장에 진출할 수 있게 되는 것은 물론 이 분야 시장을 선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삼성코닝이 개발한 제품은 기존 19인치 브라운관 유리보다 길이가 70mm 줄어든 330mm로 지금까지 생산했던 것보다 후면 길이가 훨씬 짧은 모니터를 제조할 수 있게 됐다.

또 이 제품을 채택한 모니터는

기존 모니터보다 전력을 15w/h 나 덜 사용해 전기소모를 무려 12% 가량 줄일 수 있다.

또 브라운관에 흐르는 전류를 이용, 브라운관에 화면을 형성하도록 전자빔을 효율적으로 잡아당기는 편향감도를 30%가량 향상시켜 더욱 안정된 화면처리가 가능하다고 삼성코닝측은 설명했다.

이 회사는 경쟁사인 일본의 아사히유리나 NEG 제품보다 우수한 제품을 이번에 개발, 연간 5조원에 달하는 전세계 브라운관 유리 시장을 선도할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손목형 전자혈압계 개발

세인전자

세인전자는 24시간 혈압감시 기능을 지닌 고기능 손목형 전자혈압계(모델명 SE-310)를 개발, 내년 2월초부터 국내외 시장에 판매한다고 밝혔다.

세인전자가 1억 5000만원을 투입, 8개월간 연구개발 끝에 개발한 이 제품은 혈압을 측정할 시간과 측정값을 48회까지 저장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병원용 혈압계에만 적용해오던 2펄스 측정방식을 도입, 혈압측정의 정확도를 높였다.

이 제품에 도입된 2펄스 측정 방식은 기존의 손목형 혈압계가 가지고 있던 단점인 측정중 움직임으로 인한 측정에러 발생을 개선한 것으로 병원용 혈압계와 같은 수준의 정확도를 유지할 수 있다.

또 혈압측정치 저장기능을 통해 1회 혈압측정으로 정확한 진단이 어려운 고혈압·저혈압 환자의 혈압변화를 연속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환자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혈압변화를 관찰·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세인전자는 밝혔다.

세인전자는 금년 중 이 신제품에 PC인터페이스 기능을 추가, 측정한 혈압수치를 PC와 연결·기록할 수 있음은 물론 원격진료에도 이용할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다.

32비트 EISC 프로세서 세계 첫 개발

아시아디자인

국내 비메모리 반도체 설계 분야의 벤처기업인·차세대 디지털 TV의 핵심 칩셋에 사용되는 32비트 마이크로프로세서를 세계 처음으로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

아시아디자인은 지난 2년동안

30여억원의 연구개발비를 투입해 32비트 EISC(Extendible Instruction Set Computer)마이크로프로세서를 개발하고 기술개발 특허를 미국·일본·유럽 등에 출원중이라고 밝혔다.

아시아디자인은 이번에 개발한 마이크로프로세서기술을 LG 전자 종합기술원 시스템IC센터에 이전하기로 최근 LG측과 계약했다고 덧붙였다.

아시아디자인이 개발한 EISC 마이크로프로세서는 지금까지 국내 업체들이 수백억원의 기술도입비와 사용료를 지불하며 해외에서 수입해왔던 축약명령어구조(RISC)·복합명령어구조(CISC)계열 마이크로프로세서의 장점만을 취해 설계한 것으로 차세대 비메모리 반도체의 핵심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 회사가 개발한 마이크로프로세서는 고성능·저전력형 제품으로 현재 공급되는 20여종의 마이크로프로세서에 비해 고밀도이고 하드웨어 구조가 간단하며 16·32·64비트 마이크로컨트롤러유닛(MCU)을 동일한 아키텍처로 구현할 수 있다.

모니터 1억 달러 수출

오리온전기

오리온전기는 최근 독일 줄라 프사와 1억달러 상당의 17인치·19인치 모니터 40만대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계약에 따라 오리온전기는 금년에 매달 17인치 모니터 2만~3만대, 19인치 모니터 5000대 정도를 줄라프에 공급한다.

오리온전기는 지난해 8월 줄라프사와 거래하기 시작했으며 지난달 6만대, 이달 4만대의 모니터를 공급해 왔는데 이번 추가 공급계약으로 유럽시장에서 안정된 수출물량을 확보했다. 줄라프는 독일에 본사를 두고 독일·핀란드·스위스·동유럽 등지에 모니터를 공급하는 전문 유통업체이며 오리온전기 이외에도 현대전자와 한솔전자로부터 모니터를 공급받고 있다.

오리온전기는 모니터용 컬러브라운관(CDT)을 생산하는 이점을 살려 모니터사업을 확대하기로 하고 금년에 매출 4170억원, 영업이익 214억원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 회사는 지난해 모니터사업에서 3000억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사무기기 DLC 코팅 기술 개발

인하대

인하대 재료공학부 이종무 교수팀은 지난해 1년동안 2억원을 들여 레이저프린터·복사기·팩시밀리 등 사무용 기기의 핵심부품인 OPC드럼의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DLC(Diamond Like Carbon)코팅기술을 개발했다.

이번에 개발한 기술은 자장제어플라즈마기술을 이용해 OPC드럼에 다이아몬드막을 입히는 방식으로 드럼의 경도를 28배 이상 향상시켜 OPC드럼의 수명을 기존 제품보다 2배 이상 향상시킬 수 있다.

또 DLC 코팅기술을 이용한 OPC드럼은 90% 이상의 높은 광투과도와 10V 수준의 우수한 잔류전위 특성을 갖고 있어 기존 고속복사기에서 나타나는 잔상문제를 해소할 수 있으며 기존에 5만~10만장에 머물렀던 복사한계를 20만장 이상으로 늘릴 수 있다.

고정도 압력·차압 전송기 개발

코닉스

계측기 전문업체인 코닉스가 고정도 압력 및 차압 전송기(모델명 PT-350)를 개발했다.

그동안 압력·차압전송기는 미국·일본·독일 등으로부터 전량 수입에 의존해왔으나 이 회사가 지난 3년 동안 15억원을 투입해 한국전력공사와 공동으로 제품개발에 성공함으로써 연간 350억원의 수입대체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번에 개발한 제품은 100mmH₂O의 미세압부터 350kg/cm의 고압까지 측정할 수 있으며 디지털 필드기기 프로토콜인「HART 프로토콜」을 채택하고 있어 양방향 통신이 가능하다.

특히 이 제품은 분산 제어시스템(DCS)과도 호환할 수 있으며 가스 등에서도 견딜 수 있는 방폭구조로 돼 있다.

코닉스는 제품 검증을 마친 후 전국의 발전소를 비롯한 철강·화학·가스설비 등에 이 제품을 공급할 계획이다.

업계 최저 전력소모 MCU 99센트에 제공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텍사스 인스트루먼트(TI)는 플래시 메모리기술을 내장한 업

계 최저의 전력만을 소모하는 4개의 새로운 마이크로컨트롤러(MCU)를 출시하였다.

이 신제품으로 휴대형제품이나 배터리 전원제품 제조업체들은 현장 업그레이드, 견고한 코드 개발, 마지막 순간의 코드 수정, 시험능력 개선, 제조업체 비용절감, 시장 출시 단축이 가능하게 된다. 네 개의 신제품 중 MSP430F112, MSP430 F1121로 명명된 두 개의 제품은 TI의 16비트 RISC(축소 명령 집합 컴퓨팅)MCU의 MSP430C112x 라인을 확장시킨 것으로 MSP430F112와 MSP430F1121는 4KB의 플래시 메모리가 내장되어 있고, 각각 1.8V~3.6V와 2.2V~3.6V 범위의 전압에서 동작되며 최대 8MIP(초당 100만 명령)의 성능을 가진다.

또한 MSP430F1121에는 컴패레이터 모듈이 포함되어 저비용, 고성능의 아날로그 디지털 변환(ADC)이 가능하다.

다른 두 개의 제품인 MSP430F110와 MSP430F1101은 플래시 전용 버전에 새로운 제품라인을 제공하며 1KB 플래시 메모리가 내장되어 가격이 저렴하고 위의 MSP430F112와 MSP430F1121과 동일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

DSP기반 시스템 온 칩 로드맵 발표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텍사스 인스트루먼트(TI)의 DSP 사업개발 매니저이자 시니어 펠로우(Senior Fellow)인 진 프란츠(Gene Frantz)는 워싱턴 시에서 개최된 국제전자제품학술대회(International Electron Devices Meeting)에서 가진 연설에서 TI는 시스템 성능을 2005년까지 15배 이상, 그리고 2010년까지 230배 이상 증가시킬 것을 약속하는 DSP 로드맵을 발표하였다. 이러한 DSP 성능은 전력소모 감소, 필요공간 축소와 함께 DSP기반의 상설 게이트웨이, 인터넷 TV, 휴대형 건강측정 기기, 가정용 로봇, 실시간 비디오 폰과 같은 제품들에 필수적인 것이다.

TI의 DSP 기술 로드맵은 시스템 제조업체들로 하여금 음성과 화상, 개인 및 휴대용 기기들을 향후 DSP 기술로 집약하도록 한다. 차세대 DSP 기반 제품은 일반 TV수준의 화질을 가진 무선 비디오폰, 디지털 홈 관리 시스템, 가정용 오락 및 게임, 그리고 아직은 상상 속에서만 가능한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시스템 온 칩(SOC)솔루션을 요구하고 있다.

이동통신 단말기용 MCI 개발

필코전자

필코전자는 최근 그동안 수입에 의존하던 이동통신 단말기용 적층형 세라믹칩 인덕터(MCI)를 개발, 금년부터 생산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필코전자가 1년 6개월동안 10억원을 들여 개발한 이 제품은 기존 수입제품과 동등한 수준의 품질을 유지하면서도 가격은 10%가량 저렴해 앞으로 연간 300억원 규모의 수입대체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회사는 금년 상반기부터 월 1억개의 MCI를 생산, 이동통신 단말기 생산업체에 공급하는 한편 이 가운데 50%를 해외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고부가가치를 구현할 수 있는 정보통신용 칩 부품의 생산확대에 나선 필코전자는 이번 MCI의 개발·생산을 계기로 앞으로 적층형 세라믹칩 트랜스포머(MCT)의 개발·생산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초박형 PanelMate
커넥터 매출 급증**

한국몰렉스

최근 초박형(ultra-low profile) PanelMate 커넥터가 전자제품의 초소형화 추세에 따라 매출이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1.25mm 피치인 이 제품은 LCD 패널, 노트북 PC, 캠코더, 디지털 카메라, 이동전화 및 기타 휴대 전자제품과 같이 내부공간이 협소한 전자제품에 이상적이다. 2~30의 다양한 회로수가 구비되어 있다.

이 제품의 가장 큰 특징은 헤더의 높이가 최소 0.98mm로 제품의 공간 활용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데 있다. 또한 헤더의 종류와 리셉터클의 타입, 회로수가 다양해 여러 상황에 맞는 최적의 커넥터 사용을 지원하는 것도 커다란 특징이다.

헤더는 표면실장형으로 0.98mm에서 1.90mm의 6가지 높이가 있으며 메탈로 차폐된 헤더와 차폐되지 않은 헤더가 있다. 이 가운데 차폐된 헤더는 다른 공정과정 중에 커넥터 손상을 방지하고 전자파로부터 보호한다. 또한 결합력을 강화하는 홈(friction locking window)으로 리셉터클과의 결합력을 높였으며 납땀부위가 넓어 PCB에 안

정적으로 고정되어 PCB와의 결합력 역시 높다.

리셉터클은 압착타입 리셉터클과 FPC 리셉터클이 있어 신호의 전송 속도에 따라 보통속도 신호 전송 시에는 압착 터미널, 고속 전송 시에는 FPC와의 결합이 가능하다. 압착타입 리셉터클은 높이 1.80mm로 박스형의 터미널과 결합, 신호를 안정적으로 접속하게 했다. FPC 리셉터클은 0.30mm의 FPC와 FFC 케이블과 결합되어 안정적 결합을 위한 actuator가 부착되어있다.

**의료용 열상센서
첫 국산화**

한국전자

지금까지 해외에서 전량 수입해온 의료용 적외선 센서가 국내에서도 개발됐다.

한국전자는 인체·자동차 등 발열체에서 나오는 열적외선을 영상화할 수 있는 첨단 의료용 열상 센서를 자체기술로 개발하고 최근 상품화에 돌입했다.

2~6족 화합물 반도체를 통해 국내 처음 개발한 이 제품은 온도분해능이 0.1도 이하로, 미국·일본 업체들이 개발·공급하는 기존 의료용 적외선 센서와 동등한 성능을 낸다.

한국전자는 이 제품을 통해 국

내 시장에서 수입대체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은 물론 연간 수천 억원대에 달하는 군사용·민수용 적외선 센서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1년내 경영정상화
다짐**

해태전자

해태전자는 지난해 12월 4일 서울 여의도 본사에서 간부사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새 천년 맞이 관리자 혁신 전진대회」를 갖고 앞으로 1년내 회사 경영을 완전 정상화해 새롭게 도약할 것을 결의했다.

해태전자는 뉴밀레니엄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화합과 전진의 장으로 마련한 이날 행사를 통해 이른 시일내 경영정상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간부사원들이 서로에 대한 이해와 공동체 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새 천년을 이끄는 능동적 관리자가 될 것을 다짐했다.

해태전자는 지난 97년 11월 부도 이후 2년 1개월 동안 많은 시련을 겪어오다 지난해 11월 30일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본격적인 정상화를 추진하기 시작했다.